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201>

JCCT 2023-7-24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에 관한 메타분석 2000년부터 2023년까지 -

Meta-Analysis of Self-Advocacy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Focusing on Research from 2000 to 2023

진수미*, 김화수**, 이지우***

Su-Mi Jin*, Wha-Soo Kim**, Ji-Woo Lee***

요약 본 연구는 국내 학술 등재지 및 학위논문에 게재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연구의 일반적 특성 및 효과 크기, 질적 지표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자기옹호 관련 논문 총 2153편 중 발달장애인을 키워드로 한 연구 41편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언어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청소년 및 성인, 또는 전환기 시기에 20-30명이 있는 학습상황에서 10-19회기수를 기준으로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권고하며, 특수교육, 통합교육 등 교육적 차원에서만 국한된 연구가 많은데 이를 적용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자기주장, 자기권리를 효과적이고 세련되게 주장할 수 있는 언어재활 차원에서의 자기옹호 언어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발달장애, 성인발달장애, 자기옹호, 연구동향, 메타분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effect size, and qualitative indicators of self-advocacy studi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ublished in domestic academic journals and theses. For this purpose, among a total of 2153 papers related to self-advocacy published from 2000 to 2023, 41 studie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the keyword were selected, and the specific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hen developing a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 related to self-advocac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based on the number of sessions of 10-19 in a learning situation with 20-30 people in adolescents and adults, or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re are many studies limited to educational aspects such as special education and integrated education, and by applying this, it is hoped that a self-advocacy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 will be developed at the level of language rehabilitation that can effectively and sophisticatedly assert self-assertion and self-rights after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Key words :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ult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lf-Advocacy, Research Trends, Meta-Analysis

*정회원, 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공동저자)
**정회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5월 15일, 수정완료일: 2023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1일

Received: May 15, 2023 / Revised: June 5, 2023
Accepted: July 1, 2023
***Corresponding Author: whasoolang@hanmail.net
Dep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Univ,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면서 '나(I)', '자아(ego)', '자기(self)'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며 사회화를 이룬다.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화는 발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재활 및 교육을 제공받음에도 자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서은주, 2021). 발달장애인은 성장과정에서 발달능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적응행동 등에 어려움에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이 삶을 주관하는 주체자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르면, 설나래(2022) 등에 의하면 지적장애인들은 타인과의 유연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역할 및 역할분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부모와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1]. 또한, 지적장애인들은 잦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아실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조인수, 이응훈, 2006; 김삼섭, 2010). 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특성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옹호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한다(방명애, 최하영, 2003; Micheals, 1994). 과거의 특수교육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실제 장애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정적, 지원적 서비스만을 제공하였다(김혜경, 2001; 손희정, 박현숙, 2005; Brincherhoff, 1994; Martin & Marshall, 1995). 그 이후, 2011년 기본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재활'에 자기 이해, 장애이해, 장애인의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률, 월평균 소득수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이용률 등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변용찬, 손창균, 이연희 등, 2011).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신이 역올한 상황일 때,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

지 못할 때가 많다(김유리, 2010)[2].

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는 전환기 시기에 진학과 취업, 지역사회의 참여를 하기 위해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특수교사 및 재활전문가와 학부모는 발달장애인이 궁극적인 삶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자기결정력, 자기옹호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성아, 2014)[3].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정부 및 지역사회,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고 인지에 어려움이 있어 기회박탈, 무시 등 인권침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왔다(보건복지부, 2012; 조홍식, 박희찬, 이준영, 강상경 등, 2012).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정부적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방적 차원의 방법으로는 친구, 가족, 동료 등의 타인이나 전문가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옹호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엄미선, 2003; 강희설, 2010).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기술 등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는 어렵다(이수향, 2009)[4].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주변인이나 외부전문가들이 이들의 옹호자가 되어왔다. 그러나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외부인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기에는 사생활 침해, 경제적 비용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William & Shoultz, 1982; Goodley, 2005).

자기옹호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어적 또는 비구어적으로 자신의 권리, 욕구, 필요, 의견, 신념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방명애, 김수현, 2002; Beirne-Smith, Ittenbach, & Patton, 1998; Lehr & Taylor, 1986[Ward & Meyer, 1999, 재인용]; Van-Belle, et al., 2006 참조). 자기옹호는 저절로 터득되는 발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학습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방명애, 김수현, 2002), 전

문가는 발달장애인에게 자기옹호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자기옹호 교수는 매우 중요하며, Khemka와 Hickson(2006)은 청소년기를 자기옹호와 관련된 자기방어, 동료 학생에 대한 저항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보았다(Khemka, Hickson, Casella, Accetturi, & Rooney, 2009, 재인용), 김기룡(2014)[5].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력은 의사소통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

자기옹호의 구성요소로는 자기에 대한 지식(강점, 선호, 꿈, 학습 스타일 등), 권리에 대한 지식(개인, 공동체의 권리, 교육의 권리, 폭력에 대처하는 단계 등), 의사소통(주장, 협상, 경청, 바디랭귀지 등), 리더십(타인 또는 조직을 위한 옹호, 정치적 행위 등)과 같은 넓은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Test, Fowler, Wood, Brewer, & Eddy, 2005), 발달장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중재내용이나 중재방법, 중재전략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를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는 수용단계를 인지하고, 자기의 권리 주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주장하기를 배우며 성인이 되어 필요한 전생애적 의사소통 능력을 배워나간다(강혜경, 2013)[6].

이에 본 연구자는 자기옹호 관련 연구들에 대한 동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사, 통합교육에서의 발달장애인들의 자기옹호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몇편 출판되었지만, 언어재활과 관련된 연구는 스마트기기 기반의 AAC 도구를 활용한 스크립트 활동 교수가 중도 지적장애아동의 의사소통행동에 미친 영향(고희선, 2017)[7] 이외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발달장애인과 자기옹호 관련 논문에 대해 메타분석을 하여, 연구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언어재활 관점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자기옹호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연도별 출판수,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 연령, 연구대상자 수, 회기수, 독립변인, 종속변인)을 분석한다.

2.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메타분석한다.

2-1)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연구에 따른 효과크기에 대해 분석한다.

2-2)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연구에 따른 질평가를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문헌 검색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옹호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연구의 전체 프로토콜, 연구 대상의 선정, 방법 그리고 통계 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 연구목적 선정(PICO) 단계

메타분석에 있어 첫 단계는 연구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연구질문이 결정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연구에 포함될 관련 문헌을 검색하고 찾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문헌 검색에 앞서 연구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연구의 선정기준을 PICO로 선정하였다. P는 연구대상자, I는 중재방법 및 프로그램, C는 비교집단 그리고 O는 연구결과이다(황성동, 2016)[8]. 본 연구에서 PICO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의 선정 기준(PICO)
 Table 1. Study Selection Criteria (PICO)

선정방법	본 연구의 선정기준
P(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키워드는 <자기옹호>검색을 사용하여 용어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자기옹호 and 발달장애 자기옹호 and 성인발달장애 자기옹호 and 전환기발달장애 자기옹호 and 지적장애 자기옹호 and 자폐성장애
I(중재 및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C(비교집단)	본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이 있거나 포함하였다.
O(연구결과)	본연구에서는 분석하였다.

2) 메타분석을 위한 프로토콜

한국보건 의료연구원(2020)[9]에 따르면 체계적 문헌 고찰의 흐름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것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프로토콜을 표 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연구의 프로토콜
Figure 2. Study protocol

Review 질문 확정(PICO)
↓
2. 프로토콜 개발
↓
3. 문헌 검색
↓
4. 문헌 선택과 문헌 분류
↓
5. 자료 추출
↓
6. 문헌의 비틀림 위험 평가(질평가)
↓
7. 자료 분석 결과 제시
↓
8. 결론 도출

3) 메타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 선정 방법
연구의 검색에서부터 최종 선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PRISMA flow chart로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PRISMA 흐름도
Table 3. PRISMA flow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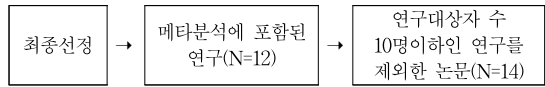
1) 자기옹호 전체 41편에 대한 연구대상 선정

문헌 발견	→	데이터 베이스 검색을 통해 발견한 연구 RISS(N=1284) KISS(N=559) DPpia(N=310)	→	다른 방법으로 발견한 연구(N=0)
		↓		↓
문헌 선별	→	중복 연구 제외한 후 연구(N=712) ↓ 선별된 연구(N=179)	→	발달장애, 성인발달장애, 전환기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제외한 연구(N=533)
		↓		↓
		선별된 연구(N=41)	→	비교집단이 없음(N=132) 적절하지 않은 개입방법(N=6)

2) 자기옹호 연구 중 중재연구 선정 기준

자기옹호 관련 선별된 전체 연구 (N=41)	→	종합적 분석에 포함된 연구(N=26)	→	연구대상수가 적은 연구(N=8) 연구대상자에 부모 및 변인이 맞지 않는 연구(N=4) 양적/질적연구 융합된 연구(N=2)
--------------------------	---	----------------------	---	---

3) 자기옹호 26편 중재 연구 중 10명 이상 대상자 참여 연구 선정 기준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에 대해 일반적인 특성을 빈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효과 크기 및 질적 분석은 Revman 5.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효과크기는 프로그램 중재의 효과크기 또는 변수 간 관계의 크기를 표현한 값이다.

III. 연구결과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된 국내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에 관한 문헌연구 총 2153편 중 선별된 연구 41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내용은 통계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1.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

1)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연도별 논문 출판 현황 분석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연도별 논문 출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도별 논문의 수
Table 4. Number of Papers by Year

2005~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2
6	9	14	7

표4에서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연구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는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연구가 2000년에 1편, 2005년에 1편으로 2편 진행되었지만, 2010년 이후 꾸준히 연구가 되어왔으며, 특히 2016년에서부터 2018년에는 각각 5편의 논문이 발간되면서 발달장애인과 자기옹호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연구방법 분석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연구방법 분석
 Table 5. Analysis of research methods related to self-advocacy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중재연구	조사연구	질적연구	문화연구
26	9	5	1

표 5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연구 방법 분석을 살펴본 결과, 문헌연구가 1편, 질적연구가 5편, 조사연구가 9편, 중재연구가 26편으로 분석되었다.

2.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중재연구 일반적인 특성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논문 중 중재연구 부분에서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연구대상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연구대상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연구대상
 Table 6. Subjects of research according to self-advocacy intervention studi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장애부모	학습장애
15	3	2	2	1

표 6의 결과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5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반대로 학습장애에서 1편의 연구로 가장 적은 연구수가 나타났다.

2)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대상자 연령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대상자 연령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대상자 연령
 Table 7. Age of Subjects according to Self-Advocacy Intervention Study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초등학교(1~3)	초등학교(4~6)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2	7	5	4	8

표 7의 결과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대상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7편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2편으로 가장 적었다.

3)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연구 대상자 수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대상자 수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대상자 수
 Table 8. Number of subjects according to self-advocacy intervention study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10명	10-20명	20-30명	30명 이상
11	2	9	4

표 8의 결과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대상자 수는 1-10명사이로 한 연구가 11편으로 가장 많았다.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실험연구에 따른 대상자 수 연구중 가장 적은 대상자 수는 10-20명으로 2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중재연구는 단일연구보다는 두 집단 연구설계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 사료된다.

4)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회기수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회기수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회기수
 Table 9. Number of sessions according to self-advocacy intervention study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회기	10-19회기	20-29회기	30-39회기	기타
0	14	5	5	2

표 9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회기수를 분석해 보면, 10-19회기에서 14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에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 회기 분석 중 1-9회기의 연구수는 0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는 1회기만으로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사료되고 10회기 이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5)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독립변인 분석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독립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독립변인 분석
Table 10.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Self-Advocacy Intervention Studi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자기결정	7
스크립트	4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 전략	3
자기주장 및 자기표현	3
자체 프로그램(자기옹호, 전환지원, 생활적용)	3
상황극 또는 역할극	2
부모교육	2
AAC	1
비디오 모델링	1

표 10의 결과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독립변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결정을 독립변인으로 한 연구가 7편으로 가장 많았다.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3편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자기옹호 프로그램, 전환지원 프로그램, 생활적용 프로그램이 있었다. 또한, AAC와 비디오모델링 관련한 연구가 각각 1편씩 나타났다.

6)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종속변인 분석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종속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종속변인 분석
Table 11. Analysis of 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Self-Advocacy Intervention Studi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자기옹호	11
자기결정능력/사회적기술향상	8
일기성취도/수업참여행동	1
의사소통행동/언어행동	1
자기지식/권리지식	1
장애정체성, 장애개방 기술	1
자기효능감	1
성인식	1
양육효능감	1

표 11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종속변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옹호를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가 11편으로 가장 많았고 자기결정능력/사회적기술향상으로 한 연구가 8편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종속변인에서 자기옹호와 가장 연관된 부분인 자기결정능력임을 보여주었다.

3.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연구에 따른 메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연구에 따른 문헌의 데이터를 메타분석 연구로, 연구 질문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연구에 따른 효과크기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 연구에서 효과에 대한 8편의 연구를 평균 효과크기(SMD)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동질성 검정 I^2 값은 97%가 나왔으며 이질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는 1.36(95% CI: 1.02, 1.70)로 유의미한 '큰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P < .001$).

2)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연구에 따른 효과크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중재 연구에서 효과에 대한 3편의 연구를 평균 효과크기(SMD)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동질성 검정 I^2 값은 96%가 나왔으며 이질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는 12.41(95% CI: 10.49, 14.34)로 유의미한 '큰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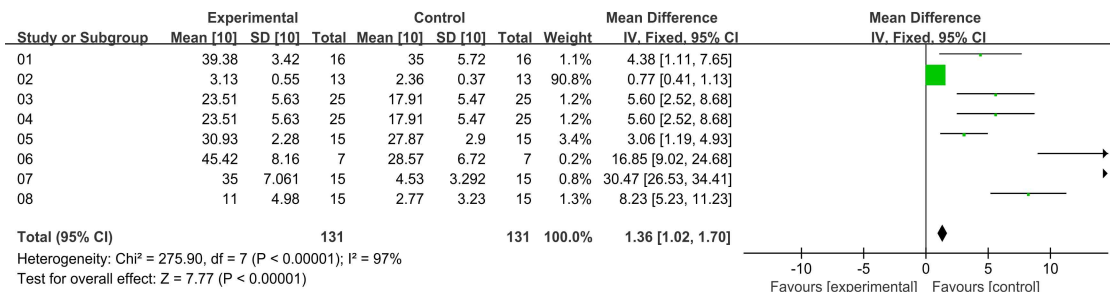


그림 1.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 8편 분석 결과
 Figure 1. Analysis results of 8 self-advocacy intervention studies o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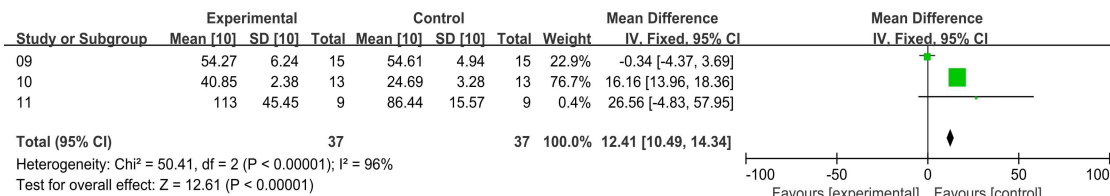


그림 2.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중재연구 3편 분석 결과
 Figure 2. Result of analysis of 3 self-determination intervention studi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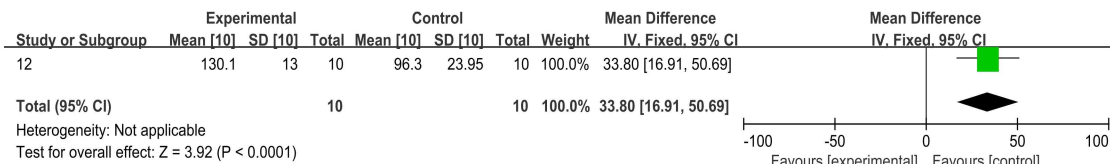


그림 3. 발달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중재연구 1편 분석 결과
 Figure 3. Analysis results of one study on self-efficacy i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3) 발달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연구에 따른 효과크기
 발달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중재 연구에서 효과에 대한 1편의 연구를 평균 효과크기(SMD)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효과크기는 33.80 (95% CI: 16.91, 50.69)로 유의미한 큰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

4)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 12편 관련 질평가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 분석에 포함된 12편의 문헌의 질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편의 자기옹호 논문 중에서는 무작위 배정순서에서는 12편 논문 모두 '높음'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배정순서에서는 12편 모두 '불확실'로 평가되었다. 참여자, 연구자에 대한 눈가림 평가에서는 10편은'낮음'으로 평가되었으나 2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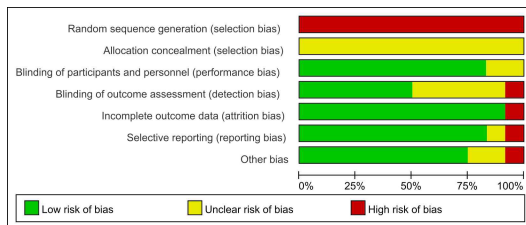


그림 4. 포함된 연구의 질을 연구별로 분석한 결과(graph)
 Figure 4. Please put the title of figure here.

'불확실'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에 대한 눈가림 평가에서는 5편은'낮음', 6편은'불확실', 1편은'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불충분한 자료 평가에서는 11편은'낮음', 1편은'높음'으로 평가되었다. 선택적 결과보고에서는 10편은'낮음', 1편은'불확실', 1편은'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

으로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는 9편은‘낮음’, 2편은‘불확실’, 1편은‘높음’으로 평가되었다.

	Random sequence generation (selection bias)	Allocation concealment (selection bias)	Blinding of participants and personnel (performance bias)	Blinding of outcome assessment (detection bias)	Incomplete outcome data (attrition bias)	Selective reporting (reporting bias)	Other bias
01	●	?	+	+	+	+	+
02	●	?	+	?	+	+	+
03	●	?	?	?	+	+	+
04	●	?	+	?	+	+	+
05	●	?	?	+	+	+	+
06	●	?	+	+	+	+	+
07	●	?	+	+	+	+	+
08	●	?	+	?	+	?	?
0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그림 5. 포함된 연구의 질을 연구별로 분석한 결과(summary)
Figure 5. Results of analyzing the quality of included studies by study (summary)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23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자기옹호 연구에 대한 문헌 분석 및 연구동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첫 째,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논문 41편, 둘째, 41편의 논문 중 중재연구 26편에 대해 연구 대상자군, 연구연령, 회기수 등 분석하였고, 셋 째, 중재연구 26편 중 연구 대상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중재연구 12편을 따로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프로그램 중재방안 및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연구의 중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41편의 논문에

서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에는 2005년, 2006년에 각각 1편씩,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각각 5편씩 총 15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중재연구 26편, 조사연구 9편, 질적연구 5편, 문헌연구 1편으로 중재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를 토대로 중재연구에 따른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두 번째,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26편의 중재연구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 군에 따라 지적장애 15편, 발달장애 3편, 자폐성장애 2편, 학습장애 1편, 장애 부모 2편으로 나타났다. 이숙향(2009)[10]은 지적장애인은 인지적 기능의 제약으로 자기옹호를 학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대상자 연령을 보았을 때, 학령전기는 아동에게는 자기옹호 관련 중재연구는 한 편도 없었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기준으로 2편의 연구가 있었다. 자기옹호는 언어 및 인지의 발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프로그램화 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장윤미(2010)의 선행연구[11]와 일치하며, 자기결정 및 자기옹호력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는 전환기시기에 교육시켜야 한다는 이성아(2014)[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청소년시기에는 자기결정력, 자기옹호력을 교육 받아 적용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되므로 학령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자기옹호를 교육이 되어지기를 권고한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대상자 수는 1-10명의 연구가 11편으로 가장 많았고 10-20명의 연구가 2편으로 가장 적었으며,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에 따른 회기수는 10-19회가 14편으로 가장 많았고 1-9회기는 0편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김윤경(2005)등이 주장하는 바, 교사 위주의 통제된 구조 안에서 자기결정 및 자기옹호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실제 생활장면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자기결정 및 자기옹호력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바이다. 최근 자기옹호 연구에서는 어린 시기부터 교수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점점 확대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기결정 및 자기옹호 기술의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강영숙, 2005; 권영욱, 2006; 김혜경, 201; 류숙렬, 2002; 박성

우, 2004; 방영애·김수현, 2006; 최소연, 2005). 그러므로 자기결정 및 자기옹호에 대한 교수는 구체적인 경험으로 가치를 내재화하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교수되어질 필요가 있다(Erwin & Brown, 2000)고 주장하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세 번째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연구에 따른 메타분석 결과이다.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중재연구 26편 중, 10명 이상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있는 논문과 자기옹호 관련 실험결과가 있는 중재연구 12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9편의 논문에서의 효과크기가 0.90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관련 3편의 논문에서는 효과크기가 12.41로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자기효능감 관련 1편의 논문에서는 효과크기가 33.80으로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큰 효과크기를 가진 논문의 주제가 비디오모델링 [11]을 활용하거나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의 적용이 자기옹호력에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시각적 자극을 활용한 영상을 통하여 의사소통과 연관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 의미있는 의사소통 연구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자는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중재연구와 관련하여 메타분석을 한 결과[12][13],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지적장애에 국한된 연구가 발달장애로 확대되어 중재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인 연구대상자보다는 청소년 및 성인기에 있는 전환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기옹호 교육이 되어지기를 권고한다[14][15]. 이는 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보통 성인이기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므로 많은 재활영역에서 연구 및 교육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생애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발달장애인은 진로 및 직업, 고용 및 노동 등 전환기 시기에 받아야 할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전환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6]. 그러므로 자기옹호는 특수교육, 통합교육 등 교육적 부분에서만 국한된 연구가 아니라 국가적 지원을 제공받아 전환기에도 더 세련된 의사소통, 자신의 삶의 질이 윤택해 질 수 있는 언어사용의 마술사가 될 수 있는 전환기 발달장애인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N. R. Seol "Effects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class in basic curriculum applying situation-centered role play on self-expression and self-advocacy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Domestic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22. Chungcheongbuk-do. <https://doi.org/10.35361/KJID.24.2.3>
- [2] Y. R. Kim, and J. A. Noh. "An Analysis of Research Methods in the Literature of Single Subject Studies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Special Child Education Research* 13.4 (2011): 357-383.
- [3] S. A. Lee. "Development of self-understanding programs including self-disability acceptance for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omestic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4. Seoul
- [4] S. H. Lee, H. N. Kang, and S. Y. Kim. "Effect of school-home health self-advocacy program on health management and self-determination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57.3 (2022): 109-143. <https://doi.org/10.15861/kjse.2022.57.3.109>
- [5] K. R.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Advocacy Measurement Items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omestic Doctoral Dissertation Ko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4. Chungcheongnam-do
- [6] H. K. Kang. "Research trends and challenges related to communication among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12.3 (2013): 269-287.
- [7] H. S. Go. "Effect of script activity teaching using smart device-based AAC tool on communication behavior of children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Domestic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7. Seoul
- [8] D. S. Hwang. (2016). *Meta-Analysis Using R* 2nd Edition. academic governor.
- [9] Korea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e (2020). *Medical Technology Evaluation Methodology: A Systematic Review*. Kwanghyeop Han.
- [10] S. H. Lee, H. S. An, J. H. Choi, A. Y. Kim, and J. H. Yang. "A Study on the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Special Teachers and Parents for Health Management and Education of

-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en Education Research* 29.6 (2021): 129-158. <http://dx.doi.org/10.18230/tjye.2021.29.6.129>
- [11]J. M. Lee. “The Effects of Labor Rights Education Using Video Modeling on Job-Related Self-Advocacy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Domestic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21. Seoul
- [12]O. I. Lee, E. Y. Park, and I. S. Shin. “The Effects of Intervention Programs on Self-Determin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Meta-Analysis.” *Delay. Overlapping. Health Disorders Study* 54.3 (2011): 101-122.
- [13]Joo-Yong Kim. “Effects of self-advocacy training program using scripts on self-knowledge and rights knowled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Master’s thesis in Korea Ga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3. Gyeonggi-do
- [14]M. H. Lee. “A Study on Self-Advocacy Experiences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omestic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7. Gyeonggi-do
- [15]M. S. Choi, and H. K. Shin. “Practical Study on Parents’ Self-Help Group Participation in Preparing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Transition to Adulthood.” *Special Education Research* 55.1 (2020): 1-29.
- [16]S. K. Choi. “Daytime Activities Support Plan for Meaningful Days of Adult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5 No. 4, pp. 105-114, 2019. <http://dx.doi.org/10.18165/JCCT.2019.5.4.105>